

정서·행동 문제아가 지각하는 두려움의 유형분석 : Q 방법론적 접근

Fear Factors in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
A Q-Methodological Approach

구미향(Mee-Hyang Koo)¹⁾

ABSTRACT

The structure of fears was identified and measured by Q methodology. Subjects were 40 school-ag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ubjectivity of children's fears was classified into 3 types by the QUANL program. Three types occupied 52% of all variance and correlations ranged between .31 and .52. The first type is "imaginative-sensitive perception" where children are fearful about unreal and imaginative objects related to death. The second type is "rational-empirical perception" where children a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fearful objects and authoritative figures based on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 The last type is "realistic-egocentric perception" where children are fearful of possible violence, crime, and disease.

Key Words :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두려움(fears), Q 방법론(Q methodology).

I. 서론

두려움은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생리적 각성이나 얼굴 표정, 신체적 움직임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대개의 영장류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인데, 감정의 주관적 혹은 경험적 구성요소는 사람의 인지능력에 따라 다양하다. 즉 감각 운동적 유아가 경험하는 감정상태는 구

체적 조작기의 아동과 다르며 체계적인 조작적 사고가 가능한 성인과도 다르다(Breger, 1974).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강도와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환경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성숙한다(Elbedour, Shulman, & Kedem, 1997).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지각하는 두려움의 발달적 특성에서도 발견되는데,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려움의 정도는 감소

¹⁾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ee-Hyang Ko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E-mail : viakoo@hanmail.net

하며, 두려움을 지각하는 양상도 변한다(구미향 · 이양희, 2003; 이영식 · 이철원, 1998; Burnham & Gullone, 1997; Elbedour, Shulman, & Kedem, 1997). 두려움의 내용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 결과(황인덕, 2003), 5세 유아가 무서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에 비해 7세 아동은 무서운 사물이나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9세 아동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려움의 대상에 있어서는 연구들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여아의 두려움 점수가 상당히 높았으며(이영식 · 최진태 · 이철원, 1994), 남아에 비해 단순공포와 비난이나 실패(이영식 · 이철원, 1998), 신체적 손상이나 상처(남은경, 1986), 동물(이경희, 1986)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fears)과 비슷한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공포(phobias)와 불안(anxiety)이 있다. 그러나 이 세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구분된다. 두렵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에 꺼려 무섭다”인데(동아새국어사전, 2004), 특정대상에 대한 불쾌한 정서반응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런 두려움을 공포라고 한다(문영임, 1991; King, Ollendick, Murphy, & Muris, 2000). 한편 두려움이 생존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서반응이라면 불안은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에서 표출되는 예시적인 걱정이며 갈등을 동반한 내적자극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이영식 · 이철원, 1998; Gullone, King, & Ollendick, 2000). 이와 같은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특히 아동기 부적응 행동의 지표인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세 ~ 13세 사이의 아동 29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고하는 두려움의 심각성을 분석한 Muris 등(2000)은 22.8%의 아동이 보고하는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안장애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동기 두려움을 정상 발달의 일면으로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증거는 임상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일반아동 중 일부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특정 공포증의 진단기준과 부합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Muris & Merckelbach, 2000). 한편 아동기 두려움과 정서 ·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의 불안과 공포는 상관이 있으며(김선영, 1989), 위축 · 불안아가 비합리적인 공포반응을 많이 보이고(김경원, 1989; 이옥주, 1978), 행동장애아에게서 특정 공포증이 동반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김경원, 1989). 또한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정서 · 행동장애아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의해 야기되는 상태 불안을 많이 보이며, 두려움의 대상을 지각하는데 있어 발달적 변화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명선 · 조수철 · 신민섭, 1999; 이영식 · 구영진, 1998; 김경원, 1989). 특히 아동기 두려움 및 공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및 행동특성에 맞는 교육 및 지도방안을 모색하고(구미향 · 이양희, 2003), 아동의 불안 및 공포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의 회복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김영순, 1999; 신지현, 2002; 임숙현, 2002; 홍준표, 1996).

따라서 지금까지 아동기 두려움 연구의 중심 주제였던 두려움의 요인구조나 발달경로 및 발

달경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동기 두려움의 임상적인 특성과 장애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구미향·이양희, 2003; Burnham & Gullone, 1997; Muris 등, 2000; Muris & Merckelbach, 2000). 특히 지난 10년간 아동기 두려움 및 공포 관련 연구가 10여 편에 불과한 국내의 연구 환경에서 임상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은 자기보고식 평가법이다(Burnham & Gullone, 1997).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를 사용한 많은 연구들은 가장 일반적인 아동기 두려움이 “위험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고하였다(이영식·최진태·이철원, 1994; Burnham & Gullone, 1997; Elbehour, Shulman & Kedem, 1997; Muris 등, 2000; Muris 등, 2001).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Muris 등(2001)은 아동이 작성한 두려움 목록과 자기보고식 평가척도, 그리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두려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기보고식 평가척도에 의한 응답결과는 아동이 작성한 두려움 목록이나 실제 경험한 두려움의 정도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으로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직접적인 경험과 두려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다(Muris 등, 2000; Muris 등,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집단간의 차이에 초점을 둔 기존의 통계분석법(R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개인내적 의미성과 개인의 주관적 시

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객관적 속성을 측정하는데 관심이 있는 기존연구법과 달리 Q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주관적 속성인 선호, 감정, 이상, 취향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김홍규, 1990; 양병화, 1998). 예를 들어 질병이나 죽음, 질투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피험자 스스로 만들어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보는 개인의 독특한 시각을 발견하고 있다(윤은자, 1998; Stenner & Stainton Rogers, 1998; Stenner, Dancy, & Watt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려움”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측정하고 개인내적 의미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가설 연역적 연구체계에서 무시되어왔던 주관성의 영역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이 지각하는 두려움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위의 결과로 발견된 두려움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P-sample)¹⁾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0명이었다. 이들은 담임교사나 상담기관 전문가로부터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아동들로서 평균연령은 10.6세

1) Q 방법론은 소 표본이론(small-sample doctrine)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Q 표본(Q-sample)의 수와 비슷하게 연구대상(P-sample)을 표집 한다(김홍규, 1990).

였고 성별은 남아 27명, 여아 13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교 교사 21명과 아동임상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전문가와 심리치료사 3인으로 하여금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선별하도록 요청하였다. 문제아동의 1차선별을 위해 교사들에게 아동행동목록표(황혜정, 1997)를 배부하고 이를 참고로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학급의 아동들을 관찰하여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도록 하였다. 문제아동의 2차선별을 위해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허윤석 외, 2003)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1차 선별한 아동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를 완성하였다.

1차 선별과정에서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 아동은 총 33명이었고, 이들 중 2차 선별과정에서 기준점수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 8명을 제외하고 총 25명의 아동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상담이나 치료에 의뢰된 아동은 총 1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의 기준점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연구도구

1) 두려움 Q 표본(Q-sample)

Q 방법론의 원리에 입각하면 아동이 지각하는 두려움의 전집(Q-population)으로부터 두려움의 표본(Q-sample)을 추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미향과 이양희(2003)가 아

동용 두려움 척도의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9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238개의 문항에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수집한 2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260개의 문항을 두려움 전집으로 삼았다. 두려움 전집으로부터 두려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을 삭제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총 42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아동학전공 교수, 연구방법론 전공 교수,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각 1인이 참여하였다.

2) 아동행동목록표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황혜정(1997)이 번안한 아동행동목록표를 사용하였다. 아동행동목록표는 원래 Rutter(1967)가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이다. 정서·행동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그리고 혼합형 문제로 세분화된다. 본 척도는 교사용과 부모용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으로 개발된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3)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최종 선별하기 위해 허윤석 등(2003)이 개발한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0점~3점이다. 부모용과 교사용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문제를 가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점수에 의해 외현화문제, 내면화문제, 신체건강문제, 인지문제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문제 또는 외현화문제의 기준점수를 만족시

키는 아동을 정서 또는 행동문제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3. 연구절차(Q-sorting)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으로 하여금 두려움 Q 표본을 분류시키는 과정을 Q-sorting이라 한다. Q-sorting은 개인이 복잡한 주제나 이슈 또는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하는 것으로서 각 응답자는 진술문을 읽은 후 그것들을 정상분포 또는 의사정상분포 속에 분류하게 된다(김홍규·김우룡, 1998). 본 연구에서도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42개의 두려움 항목으로 구성된 두려움 Q 표본을 카드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매수대로 분류하도록 하였다(표 1). 카드의 분류가 끝난 후 양끝의 5장의 카드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묻고 기록하였다. 조사는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되었고 아동 개인당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30분가량이었다.

〈표 1〉 Q-sort 분포의 모양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의 수	2	3	5	7	8	7	5	3	2

4. 자료분석

아동이 분류한 카드자료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Q-sort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4)는 1점, 가장 긍정적인 경우(4)는 9점에 해당한다. 각각의 두려움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후 문항 순서대로 코딩하고 이 자료를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하

였다. Eigenvalues 1.00을 기준으로 Principle Factor Analysis와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또한 요인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Q 요인(Q-factor)의 형성

요인분석은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할 것인지 혹은 응답자들 간의 상관을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R타입과 Q타입으로 구분된다(양병화, 1998).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응답자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유형(Q-factor)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Q 표본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류한 아동들의 조합으로서 각 유형에 속한 아동들은 두려움에 관한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유형별 Eigenvalue는 1유형이 13.77, 2유형이 4.08, 3유형이 3.12였고, 세 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2%였다.

〈표 2〉 유형별 Eigenvalue와 변량

	1 유형	2 유형	3 유형
Eigenvalue	13.77	4.08	3.12
변량	.34	.10	.08
누적변량	.34	.45	.52

2. 상관관계분석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형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31~.52였

〈표 3〉 세 유형간의 상관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유형	1.00		
2 유형	.52	1.00	
3 유형	.39	.31	1.00

다. 1유형과 2유형간의 상관은 .52로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었으나 1유형과 3유형, 그리고 2유형과 3유형은 .40 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3. 연구대상(P-sample)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요인가중치는 <표 4>과 같다. 각 유형 내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1유형에 20명, 2유형에 13명, 그리고 3유형에 7명의 아동이 할당되었다. 세 유형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는데, 문제유형별로 살펴보면 1유형에는 내면화 문제아가 12명(60%), 외현화 문제아가 4명(20%),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모두 갖는 아동(혼합)이 4명(20%)이었다. 2유형은 내면화 문제아 5명(38%), 외현화 문제아 3명(23%), 혼합형의 문제를 갖는 아동이 5명(38%)이었다. 마지막으로 3유형은 내면화 문제아 2명(29%), 외현화 문제아 2명(29%), 혼합형 문제아가 3명(43%)이었다. Q 요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홍규, 1990),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유형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유형이 문제 유형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1유형은 내면화 문제아가 월등히 많았고 3유형은 혼합형의 문제를 갖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표 4〉 연구대상자(P-sample)의 특성 및 요인가중치

유형	ID	요인가중치	학년	성별	문제유형
1 (N=20)	27	2.9459	3	여자	내면화
	29	2.1625	4	남자	내면화
	36	2.1085	1	남자	내면화
	17	1.7096	4	여자	외현화
	22	1.6444	5	남자	내면화
	08	1.6289	4	남자	혼 합
	31	1.6133	5	남자	내면화
	35	1.3365	1	남자	내면화
	07	1.3295	4	남자	내면화
	09	1.1504	3	여자	내면화
	20	1.0489	6	남자	내면화
	16	0.9799	5	남자	외현화
	40	0.9578	4	남자	혼 합
	23	0.8323	6	여자	내면화
	26	0.8049	4	여자	외현화
	02	0.7871	4	남자	혼 합
	37	0.7747	4	여자	외현화
	39	0.5212	5	남자	내면화
	06	0.3574	6	여자	내면화
	34	0.2061	3	남자	혼 합
2 (N=13)	05	2.1696	6	남자	내면화
	32	1.5239	5	남자	혼 합
	28	1.4315	6	남자	내면화
	15	1.3303	6	여자	혼 합
	11	1.2775	3	남자	혼 합
	21	1.2185	3	남자	외현화
	04	1.1990	6	여자	내면화
	25	1.1674	6	남자	혼 합
	01	1.0338	4	여자	내면화
	12	0.6111	3	여자	혼 합
	13	0.6026	3	남자	외현화
	19	0.5078	5	남자	내면화
	33	0.4077	1	남자	외현화
3 (N=7)	24	1.0726	6	남자	외현화
	14	0.9895	5	남자	혼 합
	18	0.7885	6	여자	혼 합
	03	0.6052	6	남자	내면화
	38	0.5714	5	남자	혼 합
	10	0.5350	6	여자	내면화
	30	0.0967	1	남자	외현화

4. 유형별 특성

1) 1유형 : 두려움에 대한 상상적-감각적 인식형

1유형은 죽음과 관련된 상상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준점수 1.00 이상을 얻은 항목은 죽음(z=1.65), 지옥(z=1.51), 귀신(z=1.47), 유령·저승사자(z=1.42), 살인자(z=1.16), 시체(z=1.00)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 1유형을 대표하는 아동들의 면담기록을 살펴보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으면 지옥에 빠질까봐”, “유령이 나를 죽음에 데려갈 것 같아서”,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등으로 모든 항목을 죽음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객관적인 실체가 없으며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가깝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1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적 대상(#8, #9, #23)과 상징적 대상(#5),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상(#20)과 관련 있었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자신에게 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신이 가장 두렵다고 선택한 항목들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그냥”, “이유 없이”, “모르겠다”, “~할 것 같아서”, “~할까봐” 등으로 모호한 대답을 하였으며 직감에 기초하여 두려움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제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혼을 빼앗아간다”, “죽음에 데려 간다”, “지옥으로 끌려간다”, “미라가 나를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1유형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을 표준

<표 5> 타 유형과 비교하여 1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항목

Q-표본 항목	Z 점수	평균 Z 점수	차이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			
09. 귀신	1.47	-0.25	1.72
08. 유령·저승사자	1.42	-0.19	1.61
23. 미라	0.82	-0.38	1.20
05. 어둠·밤	-0.23	-1.41	1.17
20. 뱀	0.24	-0.91	1.15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			
35. 선생님	-1.58	-0.55	-1.03
32. 시험	-1.23	-0.07	-1.16
04. 놀이기구	-1.29	-0.04	-1.26
42. 높은 곳	-0.70	0.64	-1.34
14. 어머니	-2.21	-0.36	-1.86
30. 아버지	-2.18	-0.28	-1.90

점수 -1.00 이하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애완동물이었다. 즉 어머니(z=-2.21), 아버지(z=-2.18), 선생님(z=-1.58), 개(z=-1.66), 고양이(z=-1.25), 놀이기구(z=-1.29), 시험(z=-1.23) 등에 대해 아동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면, “좋다”, “친절하다”, “보호해준다”, “다정하다”, “착하다” “재미 있다” 등으로 대상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1유형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자신에게 도움이나 애정을 제공하는 대상(#14, #30, #35)과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통제가 가능한 대상(#4, #32, #42)이었다.

2) 2유형 : 두려움에 대한 이성적-경험적 인식형

2유형은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에 기초하여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 “친구에게 들어서”, “TV에 무섭게 나와서”, “자주 맞아서”, “해 본적이 많아서” 등으로 설명하였다. 2유형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항목을 표준점수($z \geq 1.0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옥($z=1.62$), 유령·저승사자($z=1.40$)와 같이 상상적인 대상과 지구멸망($z=1.63$), 용암·화산($z=1.10$), 전쟁·테러($z=1.09$)와 같은 폭력·재해관련 두려움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다른 사람이나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아동은 두려움의 대상이 불특정한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영혼이 고통 받는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민족이 사라진다”등으로 응답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이 갖는 영향력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2유형이 독특한 점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다는 것이다. <표 6>를 보면 2유형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아버지는 원래 무섭다”, “아버지가 때리니까”, “어머니가 화내면 맞는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하다”, “선생님이 무섭게 해서” 등으로 부모와 교사를 권위적인 인물로 보며 일상경험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성되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이 유형의 아동은 실체가 없거나, 자신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갖은 접촉경험으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경감된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준점수 -1.00 이하로 2유형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항목에 개($z=-1.87$), 벌레($z=-1.97$), 고양이

<표 6> 타 유형과 비교하여 2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항목

Q-표본 항목	Z 점수	평균 Z 점수	Z 점수 차이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			
30. 아버지	0.82	-1.78	2.59
14. 어머니	0.66	-1.79	2.45
35. 선생님	0.11	-1.39	1.50
13. 지옥	1.62	0.32	1.30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			
41. 흥가·버려진 집	-0.57	0.47	-1.03
37. 고양이	-2.07	-1.01	-1.06
18. 무서운 영화	-0.80	0.28	-1.08
11. 무서운 이야기	-1.26	0.62	-1.32
09. 귀신	-0.56	0.77	-1.33
29. 치과·병원	-1.80	-0.43	-1.37
40. 악몽·무서운 꿈	-0.60	0.95	-1.54

이($z=-2.07$)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툭기면 끝이다”, “죽이면 된다”, “때리면 된다”, “소리 지르면 도망간다”, “던져버리면 된다”, “할퀴면 때리면 되니까” 등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완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체가 없는 상징적인 대상(#9, #11, #18, #40, #41)에 대해 “귀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서운 영화를 많이 봐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밤에 나간 적이 많아서” 등으로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대상과의 접촉경험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표 6).

3) 3유형 : 두려움에 대한 현실적·자기중심적 인식 형

3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대상을 두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z \geq$

1.00)를 기준으로 3유형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살인자($z=1.92$), 불치병($z=1.57$), 유괴범($z=1.56$), 강패·불량배($z=1.26$), 시체($z=1.20$) 등으로 주로 폭력과 범죄, 질병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높은 두려움을 보였다. 또한 악몽($z=1.23$), 높은 곳($z=1.15$), 회초리($z=1.11$) 등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대상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살인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병에 걸리면 뛰어들 수 없어서”, “유괴범이 나를 잡아가기 때문에”, “강패가 돈을 뺏는 광경을 직접 봤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매 맞으면 아프니까” “무서운 꿈을 자주 꾸서” 등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3유형은 가정이나 학교(#32, #36, #40),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4, #29, #42)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인식하였다.

한편 표준점수($z \leq -1.00$)를 기준으로 3유형이 두렵지 않다고 지각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주로 사람과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z=-1.38$), 어머니($z=-1.37$), 선생님($z=-1.21$)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인식되며, 개($z=-1.64$)나 뱀($z=-1.27$), 벌레($z=-1.20$)는 “예쁘다”, “귀엽다”, “좋아하니까”, “관찰하기 좋다”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상인지, 대상과의 긍정적 접촉경험이 있는지의 여부가 두려움의 정도를 결정짓는 변인이 되었다. 또한 <표 7>에 나타난 타 유형과의 비교결과를 참고하면, 상상적인 대상(#8, #13, #23)이나 상징적인 대상(#3, #13),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상(#20, #24)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타 유형과 비교하여 3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항목

Q-표본 항목	Z 점수	평균 Z 점수	차이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			
32. 시험	0.60	-0.98	1.57
29. 치과·병원	0.13	-1.39	1.51
42. 높은 곳	1.15	-0.29	1.44
36. 회초리, 매	1.11	-0.10	1.21
40. 악몽·무서운 꿈	1.23	0.03	1.20
27. 유괴범	1.56	0.40	1.16
04. 놀이기구	0.30	-0.83	1.13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			
23. 미라	-0.67	0.37	-1.04
24. 호랑이·사자	-1.09	-0.04	-1.05
20. 뱀	-1.27	-0.15	-1.12
21. 죽음	0.23	1.46	-1.23
03. 무덤·묘지	-0.67	0.57	-2.24
13. 지옥	-0.86	1.56	-2.43
08. 유령·저승사자	-1.78	1.41	-3.19

이러한 대상에 대해 3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무덤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어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과 더불어 자신이 특정 대상과 맺는 관계의 경험에 기초하여 두려움의 정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정서·행동 문제아가 지각하는 두려움의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아동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질에 따라 세 가지의 독특한 유형이 발견되었다. 각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에 대한 상상적-감각

적 인식 형이다. 이 유형은 비현실적인 상상적 대상에 대해 분명한 논리적 이유 없이 감각적인 느낌에 기초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유형이 가장 두렵다고 지각하는 것은 “죽음”인데 “지옥”, “귀신”, “유령·저승사자” 등의 상상적 대상이 모두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미국과 호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죽음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 유형으로 밝혀졌고(Burnham & Gullone, 1997), 우리나라 소아의 공포요인 중 1요인 역시 위협 및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이영식 등, 1994). 본 연구에서도 죽음과 관련한 상상적 두려움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연구한 이준숙(1992)은 9세12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죽음을 선행, 죄, 귀신, 저승사자, 또는 영혼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인을 포함시켜 이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1유형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귀신이 간을 빼먹고”, “유령이나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죽음을 암시하는 두려움을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포는 아동이 경험하는 상상력, 죄악감,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귀신에 대한 아동의 두려움은 어머니 상과의 분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포와 무서움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된다(김선미·홍강의, 1983). 본 연구에서 귀신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면 김선미와 홍강의(1983)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데려 간다”와 “죽어서 엄마 아빠를 못 본다” 등과 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었다. 또한 전혀 무섭지 않다고 응답한 첫 번째 대상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z=-2.21$)인 점을 감

안하면 1유형에 속하는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의 일부가 모성박탈이나 분리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한편 1유형에 속하는 아동의 상당수가(60%) 위축, 우울, 불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내면화된 장애아동으로 분류되었는데, 위축·불안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비합리적인 대상에 대해 공포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경원, 1989; 이옥주, 1978)에 비추어 볼 때 내면화 장애와 상상적·비현실적 공포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두 번째 유형은 두려움에 대한 이성적-경험적 인식 형이다. Rachman(1977)에 의하면, 환경과의 접촉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즉 직접적인 조건화와 모델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두려움이 발생한다. 공포반응이 소실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공포를 야기했던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자극에 대한 신기성과 기이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공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김선영, 1989; King 등,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성적-경험적으로 두려움을 인식하는 아동들의 특성과 일치한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두려움의 정도는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상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이 특정대상(저승사자, 전쟁·테러...)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TV나 친구로부터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며, 또 같은 방식으로 자주 접하고 많이 듣거나 봄으로써 특정대상(무서운 영화, 이야기,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2유형의 아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상상적인 대상이나 폭력 및 재해가 일반인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염려한다. 또 한편으로 현실세계에서 아동이 직면

하는 직접적인 경험은 대상에 대한 아동의 두려움을 강화한다. 선행연구의 결과 가부장적 전통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문화권의 아동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Elbedour 등, 1997), 열악한 가정환경과 낮은 자기개념, 우울, 불안감 등이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노명선 외, 1999), 우울과 불안 성향이 높은 아동이나 품행장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적 인물에 대해 공포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구미향·이양희, 2003; 김경원, 1989). 본 연구에서 발견된 두 번째 유형은 타 유형과 비교하여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 특이한 점인데, 즉 아동은 부모와 교사를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이 주는 부정적 피드백(feedback)에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반응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권위적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자신을 통제하는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반대로 자신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애완동물, 벌레...)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반응함으로써 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행동양식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흔히 학대받는 아동에게서 이와 같은 모순된 행동이 발견되는데, 즉 학대로부터 기인한 정신 및 행동문제의 증상은 분노와 억압, 무력감 등의 정서적인 증상은 물론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나 공포증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증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때로 학대받는 아동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의 가학적인 행동을 모델로 삼은 결과로 이해된다(Thompson & Rudolph, 2001). 따라서 2유형이 지각하는 두려움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유형은 두려움에 대한 현실적·자기중심적 인식 형이다. 이 유형에게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은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폭력, 범죄, 질병 등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1유형과 다르며, 두려움의 대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점에서 2유형과 다르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두려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경향은 2유형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악몽이나 고소공포증같이 자신이 현실세계에서 자주 경험하는 불쾌한 자극에 대해 공포반응을 보이며, 무덤이나 벌레, 뱀과 같은 대상은 자주 접촉하거나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공포는 주로 직접적 환경내의 사건에 국한되며 불안은 앞으로 닥칠 예시적인 걱정을 포함한다. 아동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힘을 획득하면서 예상적인 현상 혹은 상상적인 현상 등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영임, 1991; 이영식·이철원, 1998).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불안이 높고, 학령기 아동의 불안과 공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영순, 1999; 신지현, 2002; 홍준표,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유형의 경우 현실적인 경험에 기초한 두려움과 더불어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불안과 공포가 혼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따라서 3유형의 아동이 지각하는 공포의 내용을 알고 그 공포의 정도를

감소시키면 불안도 감소되리라 생각한다(김선영, 1989; 노명선 외, 1999; Gullone 등, 2000; Muris 등, 2000).

이상에서 정서·행동 문제아가 지각하는 두려움의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소 표본 이론에 입각한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현상에 대한 개인내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 충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Q방법론이 기존의 연구방법과 차별되는 가장 큰 매력은 아마도 가설발견의 논리일 것이다. 즉 기존의 방법론이 가설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검증하는 가설연역적 방법을 취하는 반면, Q방법론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디어나 관념, 암시 등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홍규, 1990).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견된 가설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분리 불안이 있는 아동은 죽음과 관련된 상상적 두려움이 클 것이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가 있는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두려움 평가척도를 활용하여(fear scale, 행동관찰 및 인터뷰, 부모면담...) 두 집단간에 지각된 두려움의 유형 및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상적·비현실적 공포반응은 아동기 행동장애 중 내면화 장애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이미 기존의 연구결과(김경원, 1989; 이옥주, 1978)를 통해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공포반응이 내면화 장애의 하위영역 중 구체적인 어떠한 특성과 관련 있으며 아동의 성이나 연령과 같은 발달적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가학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향 및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 있을 것이

다.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애착 발달 및 기질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기 두려움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적대적·거부적 태도, 학대, 방임 등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기 두려움 및 행동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치료적 중재를 통해 아동기 행동장애와 공포 및 불안반응은 감소될 것이다. 최근 아동기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개별 또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순, 1999; 신지현, 2002; 임숙현, 2002; 홍준표, 1996). 본 연구에서는 임상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일반 아동 중 상당수가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들이 보다 심각한 정서·행동장애로 발전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유형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각 유형에 적합한 상담 및 교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의 선행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참 고 문 헌

- 구미향·이양희(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 김경원(1989). 정상아와 정서부적응아의 공포대상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홍강의(1983). 학령전기 아동의 귀신 및 도깨비에 관한 개념. *신경정신의학*, 22(1), 15-26.

- 김선영(1989). 학령기 입원아동과 비입원아동의 불안과 공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1999). 공포 불안반응을 보이는 자폐성향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3(1), 73-85.
- 김홍규(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 7.
- 노명선 · 조수철 · 신민섭(1999). 행동문제 원인의 구조적 모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1), 3-14.
- 두산동아편집국(2004).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 두산동아편집국.
- 문영임(1991). 학령기 입원아동의 병원관련 공포에 관한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현(2002). 모-자 미술치료가 소아암 환자의 공포와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윤은자(1998).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연구. *주관성연구*, 3, 167-191.
- 이영식 · 구영진(1998). ADHD와 Tic 장애 아동의 공포. *중앙의대지*, 23(1), 51-61.
- 이영식 · 이철원(1998). 한국형 소아불안 주제목록 개발. *신경정신의학*, 37(4), 674-682.
- 이영식 · 최진태 · 이철원(1994). 한국형 소아공포 조사목록 개발. *신경정신의학*, 33(3), 524-532.
- 이옥주(1978). 아동기 행동장애의 특성, 원인 및 예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7, 101-114.
- 이준숙(1992). 아동의 죽음 하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현(2002). 입원아동의 병원관련 공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덕(2003). 아동기 걱정, 두려움, 악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1997).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행동목록표(CBQ)의 사용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1(1), 5-29.
- 허윤석 · 안동현 · 최준호 · 강지윤 · 김윤영 · 오경자 (2003).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42(6), 724-735.
- 홍준표(1996). 정서장애아의 사회적 위축 및 공포반응에 대한 집단치료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9(2), 176-192.
- Breger, L.(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entice-Hal, Inc.
- Burnham, J. J., & Gullone, E.(1997). The fear survey schedule for children II :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with American dat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2), 165-173.
- Elbedour, S., Shulman, S., & Kedem, P.(1997). Children's fears : Cultur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6), 491-496
- Gullone, E., King, N. J., & Ollendick, T. H.(2000). Assessment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fear experiences questionnaire : An attempt to disentangle the fear and anxiety construc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61-75.
- King, N., Ollendick, T. H., Murphy, G. C., & Muris, P.(2000). Animal phobias in children : Etiology, assessment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11-21.
- Muris, P., Merckelbach, H., Mayer, B., & Prins, E. (2000). How serious are common childhood fea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217-228.
- Muris, P., & Merckelbach, H.(2000). How serious are common childhood fears? : The parent's point of view.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813-818.
- Muris, P., Bodden, D., Merckelbach, H., Ollendick, T. H., & King, N.(2001). Fear of the beast : A prospective study on the effects of negative information on childhood fea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in press)*.
- Rachman, S.(1977). *The conditioning theory of fear*

- acquisition : A critical examin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375-387.
- Stenner, P., & Stainton Rogers, R.(1998). Jealousy as a manifold of divergent understandings : a Q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71-94.
- Stenner, P., Dancey, C. P., & Watts, S.(2000). The understanding of their illness amongst people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 a Q methodologic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51, 439-452.
- Thompson, C. L., & Rudolph, L, B.(2001). *Counseling children*(5th ed.). Thomson learning.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11일 채택

〈부록〉 Q-sample과 각 유형별 Z-score

Q-sample	각 유형별 Z-score		
	1유형	2유형	3유형
01. 깡패, 불량배	0.9	0.9	1.3
02. 개	-1.7	-1.9	-1.6
03. 무덤, 묘지	0.8	0.3	-0.7
04. 놀이기구	-1.3	-0.4	0.3
05. 어둠, 밤	-0.2	-1.4	-1.4
06. 불	0.2	0.7	-0.4
07. 교통사고	0.6	0.4	0.1
08. 유령, 저승사자	1.4	1.4	-1.8
09. 귀신	1.5	-0.6	0.1
10. 벌레	-0.9	-2.0	-1.2
11. 무서운 이야기	-0.0	-1.3	0.2
12. 강도, 도둑	0.7	0.5	0.9
13. 지옥	1.5	1.6	-0.9
14. 어머니	-2.2	0.7	-1.4
15. 시체	1.0	0.7	1.2
16. 전쟁, 테러	0.4	1.1	0.1
17. 불치병	0.9	0.9	1.6
18. 무서운 영화	0.1	-0.8	0.5
19. 총, 칼, 폭탄	0.7	0.0	-0.3
20. 뱀	0.2	-0.6	-1.3
21. 죽음	1.7	1.3	0.2
22. 태풍, 지진, 홍수	0.4	0.9	0.1
23. 미라	0.8	-0.1	-0.7
24. 호랑이, 사자	-0.1	0.1	-1.1
25. 지구멸망	0.6	1.6	1.6
26. 용암, 화산	0.4	1.1	-0.1
27. 유괴범	0.4	0.4	1.6
28. 따돌림, 왕따	-0.4	0.2	0.8
29. 치과, 병원	-1.0	-1.8	0.1

〈부록〉 계속

Q-sample	각 유형별 Z-score		
	1유형	2유형	3유형
30. 아버지	-2.2	0.8	-1.4
31. 거미, 벌	-0.4	-0.8	0.1
32. 시험	-1.2	-0.7	0.6
33. 혼자 있는 것	-0.5	-0.9	-0.6
34. 수술	0.0	0.4	0.3
35. 선생님	-1.6	0.1	-1.2
36. 회초리, 매	-0.3	0.1	1.1
37. 고양이	-1.3	-2.1	-0.8
38. 살인자	1.2	1.2	1.9
39. 컴퓨터바이러스	-1.5	-1.2	-0.9
40. 악몽, 무서운 꿈	0.7	-0.6	1.2
41. 흥가, 버려진 집	0.3	-0.6	0.6
42. 높은 곳	-0.7	0.1	1.2